

■ 연구원 소식

○ 2019년 1차 역사문학기행 안내(신청기간 ~ 5월 7일)

2019년 모두 4회에 걸쳐 예정된 역사문학기행의 첫 번째 답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역사문학기행은 소설가 故 이문구 선생의 작품 <관촌수필>의 배경이었던 보령시를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1. 일 시: 2019년 5월 11일(토) 09시~18시
2. 장 소: 보령시 일원
3. 내 용: <관촌수필>의 배경을 찾아 만나는 보령시 일원
4. 참 가 비: 20세 이상 1만원
5.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10:30	전주대학교 -> 화암서원 이동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산 27-1
10:30~11:30	화암서원 및 성주사지 답사	
11:30~12:00	화암서원 -> 관촌마을	보령시 대천동 387
12:00~13:00	관촌마을 답사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한산 모시관 및 신성리 답사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25-1
16:00~17:30	신성리 갈대밭 -> 전주대학교	

※ 연구원 사무국으로 5월 7일까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시는 분에게 관촌수필 해석 요약본과 탐방지역 소개글을 전해드립니다.

○ 제3차 해외역사탐방 신청 안내

1. 탐방기간 : 2019년 8월 1일(목) ~ 8월 7일(수) <6박 7일>
2. 탐방지역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3. 주방문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레닌 언덕, 성 바실리 사원, 크렘린 궁, 우주박물관, 김규면 장군 묘소, 에르미타주 박물관,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볼쇼이 극장, 붉은 광장, 민영환 숙소, 대한제국 공사관, 이범진 공사 순국지, 네바강, 피터폴 요새 및 성당,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가 묘역, 뱃머리 등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궁전, 푸쉬킨 박물관 등)
4. 참가인원 : 연구원 회원 및 시민 25명(회원 우선 선발)
5. 참 가 비 : 1인당 2,500,000원
7. 입금계좌 : 전북은행 505-13-0345110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8. 신 청 :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 hangoyeon@hanmail.net
9. 신청기간 : 2019년 5월 10일(금) 마감
10.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참 조
여권사본	신청시 즉시 제출(jpg 파일 전송)
선입금 참가비	250,000원

11. 신청방법 : hangoyeon@hanmail.net (5월 10일 18시 전송분에 한함)

* 신청 후 확인 요망 (063-286-3005 / 010-6275-0409)

참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국가보안법 모체의 탄생 (1925년 5월 12일)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은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화와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일제는 사회주의가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수단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실과 사회주의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3.1운동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단순히 집회 등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단체 조직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일본 교토대학 미즈노 나오키 명예교수는 2002년 작성한「조선에 있어서 치안유지법 체제의 식민지적 성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조선·대만·사할린 등 일본 통치지역 전역에 적용됐는데 일본 사법부는 왜곡된 법 논리로 독립운동이 곧 치안유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 필요 조건에 따라 일제는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고 식민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통제법으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의 실시를 위해 사상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계 경찰과 사상검사가 배치되고 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치안유지법은 전문 및 7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그 제1조에서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 그리고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자를 처벌했다.

여기서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으로 이 법이 사회주의운동을 겨냥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선총독부 및 사법부는 '국체의 변혁'이라는 요건을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모든 독립운동을 처벌하는데 치안유지법을 적용했다.

치안유지법은 제2조부터 5조까지 제1조의 목적 사항의 실행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선동한 자 및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수단으로 내세우고 사상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등 일체의 민족해당운동을 탄압했다.

1925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수많은 민인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치안유지법은 태평양 전쟁 종전 후인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의 틀을 유지한 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194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3조 등에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구성과 가입, 제4조에서 목적수행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규정이다. 치안유지법은 제2~5조의 동조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5~9조의 회합 통신, 찬양 고무,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 제공 등과 비슷한 규정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1차례 개정되어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948년 12월1일 제정, 공포 당시 국가보안법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치안유지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국보법은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여 이를 계승한 것으로 그 후 일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독재정권 강화를 위해 악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특별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9월18일 제정된 형법보다 5년이나 먼저 제정되었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는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을 게재했다.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여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에게 경고코자 한다. …… 국제 정세가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승만과 제1공화국, 서중석 / 역사비평사)

조선일보 사설의 예측대로 국가보안법은 한국 현대사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민인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어야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독재자들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인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민인들에게 '빨갱이' 낙인은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한국사회의 의무가 기억과 참회라는 한 역사학자의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자명한 질문이 아닐까?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부처님 사리모신 설악산 봉정암, 일곱 번째 이야기 - 하늘을 떠받든 대청봉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봉정암에서 대청봉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 내설악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외설악의 일부를 넘겨다볼 수 있는 환상적인 길이다. 일단 능선에 오르기만 하면 길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게다가 봉정암이나 오세암에 묵으면서 미역된장국에 물린 사람들이 소청대피소에서 맛보는 한 그릇의 라면은 거의 산해진미에 가깝다. 이곳에서 용아장성을 중심으로 한 내설악의 풍광이 한눈에 잡힌다. 공룡능선도 마등령 코스도 건너다보인다. 신선대 역시 희운각 쪽으로 내려다보인다.

소청대피소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날씨와 때에 따라 다양하게 모양을 바꾼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뿌연 비안개가 피어올라 은밀하고도 신비스런 경치가 된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온통 하얀 빛깔로 이루어진 별세계가 나타나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침잠시킨다. 구름에 덮이면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설악은 자태를 바꾸며 우리의 눈을 연달아 매료시킨다.

소청대피소의 석양도 무척이나 고풍적인데, 그 까닭은 봉정암보다 더 큰 하늘이 배경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휩싸인 날, 시뻘겍게 타오르는 이곳의 석양은 휘황찬란하고 신비롭기 그지없어, 보는 이들을 저절로 부르르 떨게 만든다. 안개의 요에 구름의 이불을 덮은 그윽하면서도 적막한 이곳의 새벽 경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지니게 만든다. 여기도 역시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진지하고도 겸손한 구도자로 이끄는 곳이다.

사실 이곳이 화창하게 맑은 날은 일 년 중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때는 저 멀리 북쪽으로 금강산이 아련하게 보인다. 설악산의 남성다움에 짝을 이룰 만한 굽디고운 금강산이 가끔 존재를 내보이는 것이다. 중청봉은 둥그렇게 생긴 구조물 서너 개를 머리에 이고 있다. 휴대폰 기지국으로 여겨지는데, 이로 인해 중청봉은 어느 곳에서든지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이 중청봉의 허리를 감돌면 중청대피소가 먼저 나타나고, 건너편에 대청봉이 우뚝하다.



대청봉 설악산의 최고봉은 겸손하고도 소탈한 모습으로 산행객들을 부른다.

대청봉은 중청대피소에서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지만, 지친 걸음으로는 쉽지 않은 거리다. 그러나 새파란 '눈소나무'와 보랏빛 '금강초롱꽃'을 구경하는 재미가 함께하는 길로, 땅거죽을 뚫고 나온 장중한 바위들 구경도 별미다. 대청봉을 향해 누운 능선길 좌우에 눈소나무가 펼쳐진다. 사철 들이치는 비바람에 납작하게 엎드린 눈소나무는 눈향나무와 마찬가지로 누운 소나무란 말의 축약형이다. 이 눈소나무가 대청봉이란 이름을 낳았다. 눈소나무가 온통 푸르게 휘감아 장식하는 탓에 가장크고 푸른 봉우리란 뜻을 지닌 대청봉이 된 것이다.

곳곳의 바위틈에서는 금강초롱꽃이 등을 내걸었다. 제각각 양증맞고 귀여운 모습인데,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야생화다. 가을에는 두메부추의 짙은 보라색 꽃떨기도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두메부추는 우리나라 야산에 흔한 식물이다. 대청봉은 설악산의 주봉이다. 해발 1708m의 높이로, 좀처럼 자신의 전모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몸통 한두 군데쯤은 늘 구름으로 꼭꼭 여미고 있는 봉우리다. 동쪽으로 펼쳐진 동해도 구름으로 덮여 두고 혼자만 보는 봉우리다. 그렇지만 누구나 오르기를 꿈꾸던 꼭대기라서, 표지석만큼은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에 반드시 끼기 마련이다.

예상 밖으로 대청봉은 그렇게 험한 모습이 아니다. 설악산의 명성이나 이미지에 비해 등그스름하게 솟은 봉우리다. 그다지 크지 않은 바위들이 이곳저곳 나앉아 비바람을 견뎌내는 정도다. 오르막 역시 급하거나 거칠지 않으니 겸손하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아무튼 해마다 한 번 찾기도 어려운 설악의 대청봉이다. 일망무제의 눈길이 펼쳐지는 민족의 영산으로, 위엄이 당당하다. 정상 부근의 바위에 기대 비스듬히 누워 보고픈 봉우리다.

맑은 날 이곳을 찾아와 산들바람과 쏟아지는 햇살에 몸을 맡기면, 미묘한 가려움증 아니면 간지러움 같은 것이 슬며시 느껴진다. 전신에서 미세한 열이 나는 듯하다가,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들떠오르는 느낌을 맛보게 된다. 설악의 대청봉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짜릿함이다. 바로 이 법열이 늘 설악을 그림도록 만드는지도 모른다. 아니라면 언젠가 보았던 대청의 질푸른 하늘이 날부르는 것이오, 속절없이 떠다니는 설악의 흰 구름이 날 유혹하는 것이리라.

- 다음 주부터는 <설악산 오세암>을 만나보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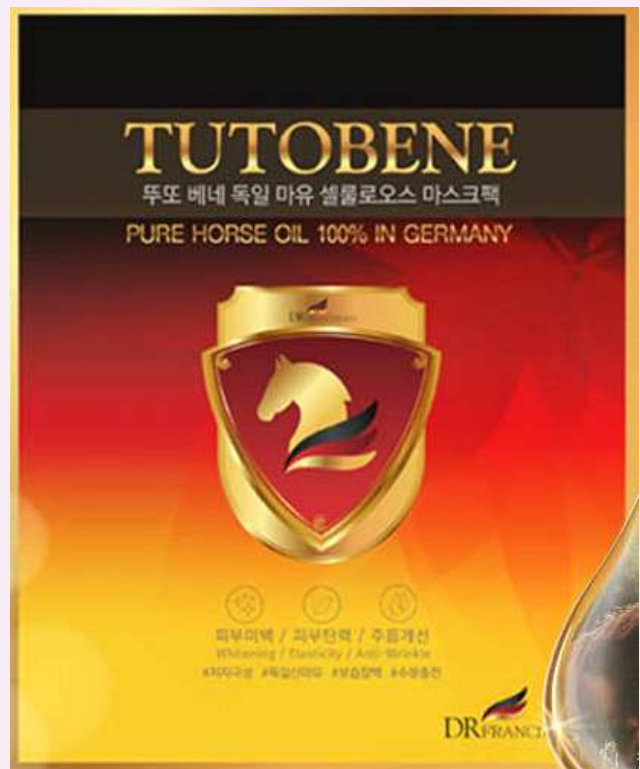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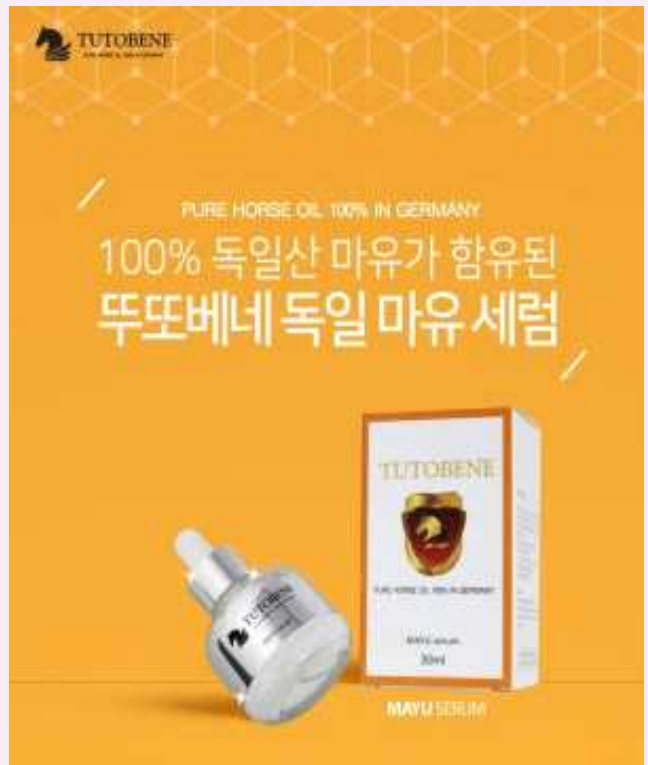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